

# 수원, 제주 제물로 5경기 만에 승리



수원 삼성이 5경기 만에 승리를 추가하며 중위권 경쟁에 가세했다. 수원은 12일 제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1부리그) 2019 제주 유니াই티드와의 경기에서 3-1로 이겼다. FC서울과의 슈퍼매치 1-1 무승부

포함 최근 4경기에서 3무1패로 주춤했던 수원은 모처럼 승수 쌓기에 성공했다. 수원이 승점 3짜리 경기를 펼친 것은 지난달 7일 강원전(2-0 승리) 이후 한 달 만이다. 수원은 승점 13(3승4무4패)으로 7위까지 점프했다

한 달 만에 승수 쌓기...7위까지 점프해  
제주, 10경기만에 첫 승 이후 다시 패배

수원은 데얀-타카토로 이어지는 외국인 공격진으로 제주를 상대했다. 제주는 마그노 카드로 맞섰다. 먼저 리드를 잡은 쪽은 제주였다. 전반 22분 역습이 제대로 통했다. 마그노의 패스를 받은 권순형이 오른발 슈트로 수원의 골문을 열었다. 수원 골키퍼 김다솔이 역동작에 걸려 처리하지 못했다.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던 수원은 전반 38분 데얀의 한 방으로 균형을 맞췄다. 데얀은 신세계의 크로스기 수비수 맞고 호르차 달려들면서 침착하게 마무리했다. 수원은 후반 시작과 함께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후반 3분 구자룡이 염기훈의 정확한 프리킥을 해

더로 연결해 2-1을 만들었다. 수비수들이 버티고 있었지만 구자룡은 한 뼘 높은 점프로 방해를 뿌리쳤다. 3분 뒤에는 타카토의 세 번째 골까지 나왔다. 데얀이 측면에 있는 사리치에게 공을 전달했고 이를 사리치가 타카토에게 패스했다. 갑자기 좋은 타카토가 좋은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다급해진 제주는 후반 15분 짜야구를 투입해 공세에 나섰으나 김다솔의 선방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지난 라운드에서 10경기 만에 첫 승을 맞은 제주는 상승세를 잇는데 실패했다. 승점 7(1승4무6패)로 12개팀 중 11위다.



## 강정호 향한 어떤 무한신뢰 피츠버그의 대단한 인내심

23타수 연속 무안타...시즌 타율 0.133으로 떨어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강정호(32),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구단은 여전히 그의 부활을 믿고 있다. 강정호는 지난달 28일 LA 다저스 전부터 안타를 치지 못했다. 23타수 연속 무안타다. 강정호의 시즌 타율은 0.135에서 0.133(90타수 12안타)로 떨어졌다. 볼넷 8개를 기록 중인 강정호의 삼진수는 31개다. 기회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최근 피츠버그가 치른 10경기 중 8경기에 경쟁선수인 폴린 모란(27)이 3루수로 선발 출전했다. 강정호는 벤치를 지키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나 피츠버그 구단은 아직 강정호를 향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MLB닷컴은 "피츠버그는

강정호가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그가 타석에서 보여준 모습 때문이다. MLB닷컴은 "강정호는 4월까지 나선 81타석에서 28삼진을 당했지만, 5월 이후 16타석에서 3개의 삼진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7타수 중 5타수에서 좌측 방향으로 뜬구이나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를 보내 아웃이 됐다. 이는 강정호가 당겨치는 힘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덧붙였다. 클린트 허버 피츠버그 감독도 강정호에 힘을 실어줬다. 허버 감독은 강정호에 대해 "우리는 그에게서 긍정적인 지표를 계속해서 보고 있다"며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 손흥민, 맨시티·리버풀 빠진 베스트 11 선정

4-3-3 포메이션의 최전방 공격수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손흥민(토트넘)을 향한 현지의 칭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이 빠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영국 일간지 더선은 12일(한국 시간) 우승 다름 중인 맨시티와 리버풀을 뺀 나머지 18개 구단의 베스트 11을 선정했다. 손흥민은 4-3-3 포메이션의 최전방 공격수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피에르 오바메양(아스날), 에당 아자르(첼시)와 어깨를 나란

히 했다. 이 매체는 손흥민에 대해 "케인의 부재에도 문제가 없었다. 시즌 중 두 번이나 케인이 빠졌지만 손흥민이 이를 잘 메웠다"고 평가했다. "손흥민은 파소평가로 자주 언급되는 선수이고, 여전히 파소평가였다"면서 "경이로운 시즌을 보내며 월드컵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칭찬했다. 손흥민은 올 시즌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20골10도움을 기록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12골6도움을 올렸다. 2018 자카르타·팔



렘방 아시안게임과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차출로 예년에 비해 공백이 길었지만 자신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다. 앞서 손흥민은 토트넘 팬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50m 드리블 질주 후 터뜨린 첼시전 득점은 올해의 골로 뽑혔다.

뉴시스

## SK 최정, 역대 5번째로 14년연속 두 자릿수 홈런

SK 와이번스의 간판 타자 최정(32)이 역대 5번째로 14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때려냈다. 최정은 12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19 신한은행 미이카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3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3회초 홈런을 때려냈다. 1-0으로 앞선 3회초 1사 2루 상황에서 최정은 상대 선발 김기훈의 6구째를 통타, 왼쪽 담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을 때려냈다. 시즌 10호 홈런.

2005년 1군 무대에 데뷔한 최정은 2006년 12개의 홈런을 때려낸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4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달성했다. 2016년(40개)과 2017년(46개) 2년 연속 홈런왕에 오르기도 했다. 이 부문 최장 기록은 한화 이글스의 장종훈(1988~2002년), 삼성 라이온즈의 양준혁(1993~2007년)이 기록한 15년 연속이다. 최정은 SK 와이번스의 박경완(1994~2007년), 한화의 김태균(2003~2009년·2012~2019년)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들 중 현역 선수는 최정과 김태균 뿐이다. 개인 통산 홈런을 316개로 늘린 최정은 통산 홈런 순위에서 7위를 달리고 있다. 6위 심정수(삼성·은퇴·328개)와는 12개 차다.

뉴시스

## 한국 U-20 축구대표팀, 뉴질랜드에 승부차기 승리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을 준비하는 정정용호가 뉴질랜드와의 평가전에서 승부차기 승리를 거뒀다. 한국 U-20 축구대표팀은 12일 한국시간 폴란드 그네비노에서 열린 뉴질랜드 U-20 축구대표팀과의 친선경기에서 1-1로 정규시간을 마친 뒤 승부차기 끝에 7-6으로 이겼다. 조영욱(FC서울)은 전반 9분 팀의 첫 골을 뽑아내며 패조의 컨디션을

인정했다. 뉴질랜드는 최근 두 대회 연속 16강에 오른 팀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운두라스 우투파이, 노르웨이와 C조에 속했다. 한국 U-20 축구대표팀은 17일 에콰도르와 마지막 평가전을 갖는다. 한국 U-20 대표팀은 28일 포르투갈과 F조 조별리그 첫 경기를 갖는다. 29일에는 남아공과 격돌하고, 1일에는 아르헨티나와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 양궁 소채원, 월드컵 2차 컴파운드 개인전 금



소채원(22·현대모비스)이 2019 세계양궁연맹(WA) 월드컵 2차대회 컴파운드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소채원은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벌어진 대회 컴파운드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소피아 스트라찬(미국)을 148:140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첫 엔드(3발)를 29-28로 출발한 소채원은 2엔드, 3엔드와 마지막 5엔드에서 모두 10점을 쏘며 한 수위의 기량을 뽐냈다. 앞서 열린 단체전 결승에서는 남녀 모두 미국을 넘지 못했다. 지난달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열린 1차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던 컴파운드 대표팀은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로 이번 대회를 마쳤다.

뉴시스

지역관광사업장소정보지원  
전일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 심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정,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 구례군은 지리산순천, 창세미골, 회현사, 선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